



장대훈

외국변호사

TEL +86-10-8447-5343
FAX +86-10-8447-5349
E-MAIL dxzhang@shinkim.com

장대훈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(유) 세종의 선임외국변호사로 재직 중인 중국 변호사이며, 주된 업무분야는 중국과 한국간의 투자, M&A, 부동산 및 기업일반자문 등입니다.

장변호사는 외국인투자, 기업인수·합병(M&A), 해외투자, 중국 부동산 개발 및 투자, 중국 회사법 및 중국 노동법 등 분야의 전문변호사로써, 해외법인 또는 중국법인을 대표하여 다양한 업종(부동산, 석유화학, 탄광, 내수유통, 네트워크게임, 의료기계, 선박제조 등 업종 포함) 및 외상투자기업(중외합자, 중외합작, 외상독자 포함)의 설립, 운영 및 투자철회(청산, 양도 등 포함)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
장변호사는 다녀간 수많은 한국의 우수 대기업 및 중국내 현지법인을 상대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고, 중국기업의 한국 및 조선 직접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, 현재 다수의 다국적기업과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장변호사는 중국 북경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고, 2009년에 중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, 북경중륜변호사사무소, 북경대성(상해)변호사사무소 등 중국의 유명한 변호사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(BKL) 상해사무소에서 중국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.

경력

2018-현재	법무법인(유) 세종 북경 사무소
2017-2018	법무법인 태평양(BKL)
2011-2016	중국 북경대성(상해)변호사사무소
2010	법무법인(유) 세종 북경 사무소
2008-2009	중국 포스코건설(중국)유한회사
2007	중국 북경중륜변호사사무소
2005-2006	중국 북경금성동달변호사사무소

주요 업무 실적

- SK케미칼의 중국법인(화공회사) 지분매각, 신규법인 설립, 생산공장 이전 관련 자문
- 포스코의 중국 현지법인 지분 매각 및 철수 관련 자문
- 광성의 중국 현지법인 토지보상금 협상 전략 수립 자문
- 현대자동차 그룹의 중국 내 수소상용차 진출 전략 수립 자문
- 카카오의 중국 현지법인 구조조정
- 현대위아의 중국법인 자산매각 및 지분매각 자문
- 지에스씨의 중국법인 청산파산 관련 자문
- 아이에이의 중국 합자회사 지분 매각 자문 / 중국 합자사업 변경 자문
- 삼양식품의 중국 합작 사업 관련 법률자문
- 코스맥스의 중국 JV 사업 자문
- 현대중공업지주의 중국 내 JV 사업 자문
- 휴비스의 중국 내 JV 사업 자문
- 현대그린푸드 북경법인의 중국 사업 관련 자문 제공 / 각종 인사노무 이슈 자문
- 위메이드의 중국기업과의 게임저작권 침해 소송 관련 자문 제공(중국 현지 로펌과 공동으로 진행)
- 한양이엔지의 중국 사업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중국 사업 관련 자문
- 신성이엔지의 중국 내 산업재해 관련 검토
- 현대위아 및 현대위아 중국법인의 중국 내 매출채권 회수 관련 자문 / 중국 현지 로컬과 중국 내 소송 수행 및 집행 / 중국 Operation 관련 자문
- 현대중공업지주의 중국기업과의 로봇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계약서 검토
- CTK코스메틱스의 중국법인 설립 관련 자문
- 한화첨단소재(북경)의 중국 사업 관련 자문 제공 / 각종 인사노무 이슈 자문
- 한화케미칼(닝보법인 및 상해법인)의 중국 사업 관련 자문 제공
- 한화차이나의 중국 사업 관련 자문 제공 / 각종 인사노무 이슈 자문
- 한국산업은행의 중국 내 담보 이슈 관련 자문 제공
- 에스원 북경법인의 중국 Operation 관련 자문 / 각종 인사노무 이슈 자문
- 위메프의 중국 사업 진출 관련 자문 제공
- 롯데쇼핑의 롯데시네마 중국 내 영화사업 관련 자문
- 현대중공업지주의 중국 Operation 관련 자문 / 각종 인사노무 이슈 자문

학력

2004 중국 북경대학 법학과 졸업 (법학사)

자격

2009 외국변호사, 중국

언어

중국어, 한국어

외부 활동

- INVESTMENT & BUSINESS GUIDE 중국II 세법편(법무부 2010년 발행)
- INVESTMENT & BUSINESS GUIDE 중국III 공정거래편 (법무부 2010년 발행)